



황동하 표 스위퍼

돌풍 기대하라

KIA 타이거즈의 황동하가 지난 25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진행된 KT 위즈와의 연습경기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에 부는 '스위퍼' 바람, 황동하가 돌풍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리그에는 변형 슬라이더인 스위퍼가 화제가 됐다. NC 에이스 페다가 위력적인 스위퍼로 타자들을 요리하면서 리그 MVP에도 등극했다.

올 시즌 KIA에서도 스위퍼가 눈길 끄는 구종이 됐다. 새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이 스위퍼를 활용하고 있고, 미국 드라이브라인에 다녀온 황동하도 스위퍼에 도전하고 있다.

황동하는 지난 시즌 KIA 마운드의 '셋별'이었다. 정음 인상고 출신인 황동하는 2022년 2차 7라운드 지명을 받고 KIA 유니폼을 입었다.

2022년 지명 뒤 2군서 절치부심...미국 드라이브라인 경험 "귀하게 얻은 1군 무대, 시즌 끝까지 자신감 있게 던지겠다"

높은 순번이 아니었던 만큼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는 2군에서 이를 갈면서 기회를 노렸다. 황동하는 지난해 스프링캠프에도 초대받지 못했지만 자체 연습경기에서 빠른 템포의 투구로 화제를 모았다.

공을 잡자마자 빠르게 자신있게 공을 던지면서 존 재감을 드러낸 그는 정식 배번을 받고 5월 31일 KT와의 경기에서 구원 투수로 나서 기다렸던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대체 선발로도 역할을 맡으면서 데뷔 첫해 13경기에 나와 31.1이닝을 소화했다.

6.61의 평균자책점으로 3패만 남았지만 KIA는 황동하의 가능성을 봤다. KIA는 시즌이 끝난 뒤 황동하를 미국 드라이브라인에 파견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무대로 마련해줬다.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1군 무대에 오른 그는 이번 기회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과학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그는 '스위퍼'라는 신무기에 배워왔다.

마침 새 외국인 투수들까지 스위퍼를 구사하는 만큼 새 구종을 더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문제는 '자신감'이다.

아직은 손에 완벽하게 익지 않은 구종이라 캠프 실전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게 아쉬움이다.

비로 삼성과의 연습경기 1경기가 취소됐고, KT와의 마지막 연습경기도 비로 6회까지 진행되면서 황동하는 스프링캠프에서 1이닝만 소화했다.

황동하는 호주 캔버라 캠프에서 "크로우가 스위퍼 던지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배우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인데 공을 바닥에 찍을까 봐 세계 단

지지 못했다. 보는 눈도 많고 스트라이크 던지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잘 안됐다. 스트라이크로 던지려다 보니까 꺾적이 잘 안 났었다. 자신감 있게 던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일본 오키나와 캠프 첫 경기에서도 스위퍼를 가동하지는 못했다.

황동하는 캠프 첫 경기가 끝난 뒤 "흐름 좋게 가고 있는데 실전이기도 하고 분위기가 좋을까 봐 던지지 못했다. 이번 연도에 스위퍼를 쓰려고 마음 먹었는데 첫 경기에서 위축돼서 못 쓴 게 화가 났다. 다음 경기에서는 무조건 던지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비로 연습경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실전에서 스위퍼 테스트를 하지 못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캠프 기간 스위퍼를 가동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황동하는 올 시즌 끝까지 승부를 보겠다는 각오다.

황동하는 "올해 1년은 스위퍼를 해보려고 한다. 코치님들도 1년 동안 해보자면서, 안되면 과감하게 버리자고 하셨다. 안 되도 던져보고 과감하게 시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그에게 '직구'는 또 다른 키워드다. 미국에서 직구 자신감을 얻어서 온 그는 좋았던 감을 찾아 과감하게 승부하겠다는 계획이다.

황동하는 "직구가 미국에서 훈련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다. 직구가 사니까 커터랑 다른 것도 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시즌 10번을 달고 1군 무대를 밟았던 그는 올 시즌 41번을 자신의 새 번호로 선택했다. 육성 선수 당시 서러움이 담긴, 성장을 위해 각오를 다지는 번호다.

황동하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041'이었다. 0이 붙어있을 때 서럽기도 했고,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업그레이드했다는 마음가짐으로 41번을 달았다"며 "0이 빠진 정식 번호를 받았을 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좋았다. 더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wool@kwangju.co.kr

"냉철하게 KIA 경기 해설하겠다"

해설 위원 복귀 서재응 전 KIA 코치



'이렇게 가르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며 "후수도 뒤에서 봐야 잘 된다고, 코치에서 한 발 떨어져나가는 선수들 보는 시각이 엄청 넓어진 것 같다. 코치 경험이 이번 해설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선수도 해봤고, 코치를 하고 해설을 하니까 조금 더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래도 투수 코치 입장을 많이 말할 것 같다. 그다음에 감독 생각, 그다음에 선수에 대한 생각 이런 식으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발 떨어져지니까 더 많은 게 보입니다."

해설 위원으로 복귀한 서재응 전 KIA 코치가 넓은 시야로 생동감 넘치는 해설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까지 KIA 투수들을 조련했던 그는 올 시즌 SPOTV 해설 위원으로 다시 마이크를 잡는다.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뒤 해설위원으로 제2의 야구 인생을 열었던 그는 KIA에서 투수코치를 하면서 또 다른 경험을 했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선수가 아닌 다른 시선으로 야구를 보면서 시야가 넓어졌다는 게 서위원의 이야기. 그는 최근 KIA 스프링캠프가 마련했던 일본 오키나와를 찾았다. 새출발에 앞서 '관객'이 돼 편안하게 캠프를 지켜보고 싶은 바람이었다.

서위원은 "해설이 두 번째인데 솔직히 선수 은퇴하고 해설할 때는 잘 몰랐다. 코치를 하고 다시 해설을 하게 되니까 그동안 코치 생활을 했던 기억을 쪽 돌아보게 됐다. '그때 이 선수는 이렇게 했지',

KIA에서 선수로 뛰었고, 선수들도 육성했기 때

문에 애정이 남다르지만 해설 위원인 만큼 냉철한 시각으로 경기를 보겠다는 생각이다.

서위원은 "내가 더 알 수 있는 팀이 KIA다. KIA 경기를 맡게 되면 조금이라도 말을 더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해설위원이니까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앞에서는 냉철함을 유지하겠다는 서위원이지만 그레도 눈길에 더 가는 선수는 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황동하가 서위원이 주목하는 선수다.

서위원은 "올해 같은 경우 동하를 많이 생각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지명 순번이 아래였는데 본인이 열심히 했다. 이상화 코치와 2군에서 이야기 많이 했다. 어떻게 던져야 된다는 것을 이상화 코치와 이야기 많이 했다"며 "본인이 성장해서 스스로 1군으로 올라왔다. 코치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것밖에 없다. 그 기회를 줬을 때 선수 본인이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기회를 준 것뿐이고 거기서 본인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황동하를 주목하는 이유를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U-23 '황선홍호' 파리행 로드맵 확정

서아시아 U-23 챔피언십 출전...20일 태국전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황선홍호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의 파리행 로드맵이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U-23 대표팀의 3, 4월 일정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황선홍호는 먼저 3월 A매치 기간 서아시아축구연맹(WAFF) U-23 챔피언십에 초청팀으로 참가한다.

WAFF U-23 챔피언십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서 열리며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호주, 태국, 이집트까지 8개국이 참가한다.

이 대회에서는 각 팀 모두 3차례씩 경기를 치른다.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되, 승자와 패자끼리 각각 대결해 1위부터 8위까지 순위를 가린다.

4일 열린 대진 추첨 결과 한국은 오는 20일 태국과 첫 경기를 치른다. 태국전 결과에 따라 23일에 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 경기의 승자 또는 패자와 경기하고, 26일에 최종 순위 결정전을 치른다.

참가 선수 명단은 11일 A대표팀 소집 명단과 함께 발표된다.

황선홍호는 17일 밤 인천국제공항으로 소집돼 사우디로 출국할 예정이다.

황 감독이 잠시 A대표팀 임시 감독을 겸직하며 3월 A매치 기간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을 지휘하기 때문에 WAFF U-23 챔피언십에서는 명재우 수석코치가 '황선홍 없는 황선홍호'를 이끈다.

또 A대표팀 임시 골키퍼 코치로 활동할 김일진 코치를 대신해 황희훈 축구협회 전임지도자가 대회 기간 골키퍼 코치로 황선홍호에 합류한다.

2024 파리 올림픽 최종예선을 겸해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에 대비한 훈련 캠프 일정도 확정됐다.

황선홍호는 WAFF U-23 챔피언십이 끝나고 귀국한 뒤 U-23 아시안컵 최종 명단을 확정해 4월 3일 국내에서 다시 소집한다. 이때부터는 황 감독이 다시 직접 U-23 대표팀을 지휘하게 된다.

황선홍호는 이어 5일 출국해 UAE 두바이에서 훈련한다. 9일에는 중동팀과 연습경기로 마지막 담금질을 할 예정이며, 이어 10일 결전지인 카타르 도하에 입성한다.

U-23 아시안컵에는 16개 팀이 출전하며, 상위 3개 팀이 올림픽 본선에 직행한다. 4위는 아프리카 예선 4위와 플레이오프를 치러 파리행 여부를 가린다.

한국은 조별리그 B조에 속해 UAE(16일), 중국(19일), 일본(22일)과 차례로 대결한다.

/연남뉴스



데뷔전서 데뷔골 광주FC 가브리엘 'MVP'

K리그1 1R '베스트 11' 선정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은 광주FC의 가브리엘 <사진>이 K리그1 1라운드 MVP에 등극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5일 '하나은행 K리그1 2024' 베스트 11을 선정해 발표했다. FC서울과의 개막전에서 2-0 승리를 거둔 광주가 1라운드 주인공이었다.

이날 선제골과 썩기골을 장식한 이희균과 가브리엘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경기 종료 직전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머리 맞고 굴절된 공을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데뷔골과 함께 썩기골을 장식한 가브리엘은 MVP로도 선정됐다. 가브리엘은 경기 내내 저돌적인 모습으로 서울 측면을 허물고 광주 공격을 이어가면서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중원에서 공수를 조율한 '살림꾼' 정호연, 무실점 승리를 합작한 수비수 김진호와 포포비치도 1라

운드 베스트 11 명단에 포함됐다.

화끈한 승리를 장식한 광주는 베스트팀이 됐고, 링가드의 등장으로도 화제가 된 이 경기는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다.

한편 K리그2 1라운드 MVP는 수원외의 물리치에게 돌아갔다.

물리치는 3일 안방에서 열린 충남아산과의 개막전에서 전반 21분 선제골을 기록한 뒤 전반 종료 직전 추가골을 넣으며 팀의 2-1 승리 주역이 됐다.

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 천안의 경기는 베스트 매치가 됐다. 전반 16분 천안 윤재석, 전반 37분 부천 최재영이 골을 주고 받은 두 팀. 이후 후반 37분과 경기 종료 직전 나온 이광진, 파울리노의 골로 천안이 3-1승리를 거뒀다. 이날 두 팀은 36개의 슈팅을 기록하면서 화끈한 공격 축구를 펼쳤다. 안산을 2-1로 꺾은 경남은 베스트팀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